



남해군의의회 의정소식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
Nhamhae Gun Council

2025년 상반기



발행처 남해군의회 발행인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제작부서 의회사무과
주소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편집디자인 남해시대
council.namhae.go.kr

CONTENTS

PART1. 우리 동네 군의원을 소개합니다 07

- 08 지역별 의원현황
- 10 정영란 의장 ... 늘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 12 박종길 부의장 ... 군민 삶에 닿는 진심의정
- 14 강대철 의회운영위원장 ... 현장서 듣고, 변화로 답하다
- 16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 ... 군민과 정책 잇는 가교 될 것
- 18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 ... 군민 곁에서, 꾸준한 발걸음
- 20 하복만 윤리특별위원장 ... 신뢰로, 군민과 함께 걷다
- 22 임태식 의원 ... 지역의제, 직접 뛰는 생활정치
- 24 정현옥 의원 ... 민심은 천심, 군민 뜻대로
- 26 장행복 의원 ... 군민 삶 속으로, 처음처럼
- 28 장영자 의원 ... 일상 인프라가 튼튼한 남해

PART2. 남해군의회, 이렇게 일했습니다 31

- 32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는 의정뉴스
- 38 군민과 함께, 의회 속으로 1 | 5분 자유발언
- 44 군민과 함께, 의회 속으로 2 | 건의안·조례안

PART3. 남해군의회를 알려드립니다 48

- 50 남해군의회 소개
- 52 군민 참여 안내
- 53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부록 | 보물섬 남해 54

- 56 보물섬 남해 관광안내
- 58 남해바래길 지도



군민의 꿈을 함께 일궈나가는 남해군의회

“

존경하는 남해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의회 의장 정영란입니다.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라는 제9대 남해군의회 슬로건에는 군민 꿈을 함께 일궈나가겠다는 남해군의회 의지의 담겨 있습니다.

푸른 바람에 실려 온 어부의 땀방울, 들녘을 누비는 농부의 손길이 모여
오늘의 풍요로운 남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서, 남해군의회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정책으로 잇는 징검다리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바다가 주는 기회 안에서,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이 땅 위에서 남해군
의회는 때로는 등대처럼 길을 밝히고, 때로는 방파제처럼 군민의 삶을 든
든히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담아 연 2회 <남해군의회 의정소식>을 발간합니다.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군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
길 기대하며, 의정소식 첫 호를 기획했습니다. 그런 만큼, 군민과 직접 만
나 이야기를 나누듯 생생함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부 ‘우리 동네 군의원을 소개합니다’에서는 지역 의원들의 생각과 비전을
인터뷰로 담아냈습니다. 2부 ‘남해군의회, 이렇게 일했습니다’에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의회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이 소식지를 통해 다시
의회로 돌아와 더 나은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남해군의회 의장 **정영란**

”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



PART

01

우리 동네
군의원을 소개합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구성 현황

당선횟수별	초선 4	재선 4	3선 1	4선 1	비고 -
연령별	40 ~ 49세 -	50 ~ 59세 2	60 ~ 69세 8	70 ~ 79세 -	비고 -
정당별	국민의힘 8		더불어민주당 2		비고 -

남해군의회는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정수)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의 규정에 의해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거구별로는 가선거구(남해읍·서면) 3명, 나선거구(고현면·설천면) 2명, 다선거구(이동면, 상주면, 남면) 2명, 라선거구(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2명, 비례대표 1명이다.

PART1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의원을 소개한다.



정영란
의장

정현옥
기획·행정위원



하복만
윤리특별위원장

여동찬
기획·행정위원



장행복
산업·건설위원



임태식
산업·건설위원

강대철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길
부의장

박종식
산업·건설위원

비례대표



장영자
기획·행정위원

정영란 의장의 남해 이야기



“ 늘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

Q. 의장님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제 고향 남해입니다. 어린 시절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언덕은 내려다봐도 사람은 내려보지 말라”, “마음이 착하면 미움은 머물 곳 없다”, “내가 먹기 싫은 것은 남에게 주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난다”는 가르침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은 제 삶의 중심축이자 행동의 기준이 되었고, 지금도 제 삶의 철학이자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칫 무산될 뻔했던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것입니다. 남해대교는 1973년 개통 이후 남해와 하동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해왔지만, 창선·삼천포대교와 노량대교 개

통으로 교통 기능은 축소되고,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 사업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2022년 12월 제264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지적하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경남도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에 포함돼 총 4개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의 남해대교 가치를 인정받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었습니다.

Q.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요?

남해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이며,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반농반어 지역입니다. 큰 산업기반이 없는 대신, 해양관광 분야에서 남해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인도와 무인도를 연결한 섬 관광 패키지 개발, 해양레저 자원 확충, 그리고 지역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 등을 통해 남해만의 차별화된 힐링 관광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Q. 의정활동 외의 관심사나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남해의 바래길이나 임도를 따라 걷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바래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얻은 사색과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엮어 관광객들에게 ‘이야기가 있는 보물섬 남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군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군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관행 속에 안주하면 변화도 발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남해의 지혜로운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인이 아닌 지역의 봉사자 그리고 가슴으로 소통하는 군민의 동반자로서 군민과 가까이에서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라는 목적지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에게 남해군이란 [등대] 이다.

남해군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다. 등대가 남해 밤바다를 비춰 어선의 길을 열어주듯, 길을 잃었을 때 남해는 늘 올바른 방향을 알려줬다.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이 그 길이다. 나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해 발전을 위해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싶다.

박 종 길 부의장의 남해 이야기



“ 군민 삶에 닿는 진심의정 ”

Q. 남해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남해군 이동면에서 태어나 이동초, 이동중, 남해수산고, 경남도립남해대학을 다녔습니다. 1978년 해군에 입대한 뒤 제대 후 외항선에서 10년간 선장으로 근무하며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이후 부산에서 생활했지만, 고향에 대한 애정은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1992년 남해로 돌아와 상주면에 정착했고, 지금도 바다와 이웃,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뿌리는 늘 남해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남해군은 매년 어촌계 소득 증대를 위해 해삼 씨뿌림 사업에 수천만원의 예

산을 투입합니다. 어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 해삼방류 지역의 생태 환경을 조사하고, 방류 후 자원 회수율과 어획량 변화를 분석했는데요, 자원 회수율은 물론 실제 어민들의 체감 효과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16년 제2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재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 방안 마련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요?

남해는 농업과 어업이 주요 산업인 농어촌 섬지역입니다. 흔히 공장이 없는 지역은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남해의 청정한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체류형 관광, 특산물 연계, 지역문화와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관광은 남해군의 미래이며, 이를 위한 기반을 하나하나 쌓아가고자 합니다.

Q. 평소 관심있는 분야나 취미가 있으신가요?

체육, 그중에서도 축구에 대한 애정이 큼니다. 조기축구에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뛰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건강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군민 간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 건강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 확충, 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군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의정활동을 하며 저는 늘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남해는 자랑스러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가치를 지켜나가면서도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자주 소통하며, 더 살기 좋은 남해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나에게 남해군이란 [어머니 품 속]이다.

남해는 제 인생의 시작이자 영원히 함께할 고향이요,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존재다. 남해와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따뜻한 품은 변함이 없기에 남해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앞으로도 남해라는 품속에서 군민들과 함께 웃고, 함께 나아가고 싶다.

강 대 철 의회운영위원장의 남해 이야기



“ 현장에서 듣고, 변화로 답하다 ”

Q. 의원님께 남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남해에서 나고 자라며, 자연과 사람 속에서 삶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던 모습은 제 의정활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창선·삼동·미조면을 대표하며 남해군의회의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남해군은 해양과 수산업이 중심인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해양 자원을 활용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2024년 4월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건의문을 대표발의했고, 5월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5년 동안 총 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교육 기반

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 폭도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군민들과 함께한 노력의 결실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Q. 현재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해양수산업 발전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의 천혜 자연과 해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숙박·체험·특산물 연계형 관광모형을 구상 중입니다. 동시에 해양·관광·농업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과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외부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의 다변화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요즘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최근 AI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연수 중 관련 교육을 받으며 AI를 행정,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군민과 함께하는 AI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스마트 행정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의정활동을 통해 남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습니다.

Q. 군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관광 활성화, 일자리 확대, 해양수산업 발전 등 남해의 실질적인 변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남해 구현에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의정의 방향입니다. 언제나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더 나은 남해를 위해 뛰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남해군이란 [

보물섬

]이다.

남해군은 푸른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절경, 다랭이마을·독일마을·죽방령 등 독특한 관광자원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지다. 깨끗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멸치, 전복, 미역 등 특산물 품질이 뛰어나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있는 유적과 전통 어촌문화는 남해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경쟁력을 남해군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진정한 보물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군민과 정책 잇는 가교 될 것 ”

Q. 의원님께 남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남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들판에서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까지 이어진 농업 가정에서 자라며 자연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또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토박이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준 고향, 이곳이 바로 남해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직접 농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의정활동으로 연결한 경험입니다. 2020년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2021년 제25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 한우 보호를 위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완

화’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농가를 위해 힘쓴 일들이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되며,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Q. 현재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관광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개통에 따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기회로 삼아 군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임야를 활용한 ‘산림 관광 자원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등산로 정비와 해안 둘레길 조성을 통해 남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방안 등입니다. 또, 마늘·해물 요리 등 남해 특산품을 브랜드화해 외식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 합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주차 인프라 확충과 주민 안전 대책 마련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요즘 개인적으로 관심 갖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농기계 임대 지원’과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무농약 인증 지원금’을 늘리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제 몇몇 농가에서 기계 도입으로 작업 시간과 인력을 절감한 사례를 보면서 큰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과 협력해 청년 농업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중간 유통비를 낮추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지역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이며, 이를 통해 후계 세대가 농촌에 남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Q. 군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군민 눈높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언제나 가까이에서 즉각 대응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며, 새로운 남해의 미래를 군민 여러분과 손잡고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남해군이란 [스승] 이다.

남해는 처음 만난 스승이다. 어린 시절 바닷바람과 논·밭두렁을 누비며, 자연 속에서 삶의 지혜를 깨달았다. 부모님을 비롯한 이웃 농부들의 손길과 땀방울이 배어 있는 들판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배웠다. 의정의 길에서 만난 군민의 고귀한 의견 속에서 남해 발전의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남해는 여전히 나를 일깨우는 살아 있는 스승이다.

박 종 식 산업·건설위원장의 남해 이야기



“ 군민 곁에서, 꾸준한 발걸음 ”

Q. 남해와의 인연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남해는 제 고향입니다. 이동면 토박인데요. 남해에서는 이동초·중학교, 남해고등학교까지 학창 시절을 보내며 남해와 함께 미래 꿈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남해 미래를 밝혀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Q. 군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의정 경험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로 파임, 이른바 '포트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2024년 제27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입니다. 도로 침하와 포트홀은 차량 주행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21건이었던 도로 파임 보수가 2023년엔 63건, 2024년엔 무려 114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

어 기반침하관리시스템, AI 포트홀 자동탐지, 배수 구조 개선, 고품질 포장재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도로 보수를 넘어 군민의 안전과 일상 속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편해야 마음도 편해지니까요.

Q. 남해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남해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건설 분야는 군민 일자리, 지역업체 생존과 직결됩니다.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는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분할 발주를 통해 더 많은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도 했는데요, 결국 군민 삶이 편해지고, 지역에 돈과 일이 돌아야 진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의원님이 주목하고 있는 미래 화두는 무엇인가요?

앞서 언급한 도로 파임의 경우 이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AI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도입하면 도로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기반침하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반 침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손과 시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챙길 수 있는' AI 기술은 앞으로 군민 안전과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열쇠가 될 겁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군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늘 '작은 불편도 놓치지 말자'는 다짐을 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매일 그 길을 오가는 군민들에게겐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결국 제가 어디를 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현장을 뛰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변화는 큰소리보다 꾸준한 걸음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군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나에게 남해군이란 [

나침반

] 이다.

삶에 있어 나침반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 또는 길잡이다. 내게 있어 남해가 나침반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 위의 작은 파임부터,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굵직한 제도 개선까지 모든 의정활동의 순간마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알려준 것도,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지를 일깨워준 것도 남해다. 우리 남해군민이다.

하 북 만 윤리특별위원장의 남해 이야기



“ 신뢰로, 군민과 함께 걷다 ”

Q. 고향 남해는 의원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남해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삶의 뿌리입니다. 태어나고 자랐고, 배움을 마치고 군 복무까지 마친 뒤에도 늘 제 삶의 자리는 남해였습니다.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웃, 정서 속에서 성장했고, 그래서 지금도 군민 한 분 한 분이 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남해에서 얻은 삶의 가치, 즉 겸손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군민과 소통하고자 언제나 노력해왔습니다. 남해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Q. 군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의정 경험이 있다면.

제7대 의회 시절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일이 떠오릅니다. 원안대로라면 일부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해 바로 잡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장을 직접 본회의장 질의석에 세워 질의를 했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Q. 의원님 시선에서 남해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역의 생존입니다. 인구 소멸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선정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 지역구인 남해읍과 서면 역시 지역 특색을 살린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서면은 해양 경관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조성, 읍에는 유배문학관 등 문화 자산 강화를 통한 민자 유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전통시장 먹거리 연계 등 체류형 관광 지로서의 기반 구축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Q.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의원님이 주목하고 있는 미래 화두는 무엇인가요?

단연 인공지능(AI)이 아닐까 합니다.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독서·취미·학습 등 일상적인 생활 방식까지 크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책에서 디지털 콘텐츠로의 전환과 AI 요약 도구의 활용 덕분에 어디서나 독서가 가능해지고, 방대한 책 내용 속에서도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 행정에서도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군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습니다. 늘 군민 편에서 서서 실천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군민들께서는 그 노력에 신뢰로 보답해 주셨고, 그 결과 남해 군의회 연속 4선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묵자의 “무감어수 감어인(無鑑於水 鑑於人)”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군민 속에서 제 모습을 성찰하며, 늘 초심으로 우리 남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남해군이란 [열정] 이다.

남해는 단순한 고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슴 속에 불씨를 지피는 열정 그 자체다. 태어나고 자란 남해의 땅과 바다는 근면, 성실, 겸손이라는 삶의 가치를 심어주었으며, 군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기반이 되었다.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정은 내게 있어 언제나 군민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신념이 되었다.

임 태 식 의원의 남해 이야기



“ 지역의제, 직접 뛰는 생활정치 ”

Q. 의원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남해,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저는 학교와 군 복무를 제외하면 줄곧 남해에서 살아온 순수 남해 토박이입니다. 농협과 축협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지역 농민과 어업인, 소상공인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퇴직 후에는 인근 병원에서 어르신 건강검진을 홍보하며 다시 지역과 소통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홍보과장’이라 불러주시는데, 군민 한 분 한 분과 진심으로 관계 맺으려는 제 마음이 전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창선·삼동·미조면을 지역구로 군의원 활동을 이어가며 군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Q.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무엇인가요?

군민과의 직접 소통입니다.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회기 중 총 29회에 걸쳐 다양한 계층

의 군민 309명을 의회에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있었고, 군정이 보다 군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초석을 다졌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연구 기반의 정책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주민들께서 일 잘하는 의원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뿌듯합니다.

Q. 현재 의원님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 현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고 배운 도시재생·관광모형을 보더라도 우리 남해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관광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생태탐방로, 전통 어촌마을 체험, 야간관광 콘텐츠 등으로 관광객들이 남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지역경제에도 활기가 돌지 않을까요.

Q. 군의원으로서 특히 관심을 두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요?

고령화 사회 속 어르신 건강관리는 꼭 필요한 정책 영역입니다. 특히 체육활동은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적 활력과 사회적 교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 체육시설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지역 공동체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옵니다.

Q. 군민과의 약속, 앞으로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이 행복하고, 청년과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남해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뛰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남해군이란 [

꽃

] 이다.

자연 속에서 저마다의 색과 향기를 뽐내며 꽃이 피어나듯 남해군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역사적 자원 속에서 빛을 내고 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푸른 산,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마을들은 남해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든다. 꽃을 잘 가꿔야 더욱 활짝 피듯, 남해군도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군민과 함께 남해라는 꽃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나가겠다. 남해군이 성장할수록 군민 삶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는다.

정 현 옥 의원의 남해 이야기



“ 민심은 천심, 군민 뜻대로 ”

Q. 의원님께 남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부모님이 참 많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의 빈 자리를 늘 따뜻하게 채워주신 어르신들이 모두 제 부모님입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이 남해의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보답하고 싶습니다.

Q. 군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의정 경험이 있다면.

제278회 임시회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의 소득 안정 방안을 제시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0년 관련 조례가 나왔지만, 재원 마련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예산안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기금 출연 당위성과 타당성을 분석해 우선순위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5억원 규모의 초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크게 변동할 때마다 지역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농업은 남해군 근간이며,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확신합니다.

Q. 지역 현안 중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남해가 ‘땅과 바다를 동시에 살리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여건은 날씨가,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업의 경우도 어족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더 튼튼히 해서 ‘싸게만 시장에 내놓지 말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세분화하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겨야 합니다. 스마트 농업·스마트 어업 도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다와 섬을 엮은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자해 주민 일자리도 만들고,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쓸 곳을 딱딱 짚어주면, 남해의 내일이 한층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Q. 평소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요.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역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증가하지만, 세수 기반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 개선, 교육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업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Q. 끝으로 군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처럼,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남해군이란 [

가족

] 이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마을 어르신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자전거 타기가 취미인데 자전거를 타고 남해 구석구석을 다니며 마주친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가 남해의 온기를 전해주었다. 자연스레 그 사랑을 다시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해준 남해는 내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장 행 복 의원의 남해 이야기



“ 군민 삶 속으로, 처음처럼 ”

Q. 남해군 토박이로서 의원님께 남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남해읍과 서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해군의회 의원 장행복입니다. 남해군은 제 삶의 시작이자, 지금의 저를 만든 고향입니다. 오랜 시간 웅변학원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했고, 교육·보육은 물론 환경, 체육, 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과 호흡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장 원장’, ‘장 회장’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다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이제는 ‘군의원 장행복’으로서 주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지역 발전과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처럼 군민 모두에게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에 제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Q. 가장 인상 깊었던 의정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정활동의 모든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보람을 느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입니다. 도로, 교통, 생활 불편, 숙원사업 등 하루에도 몇 건씩 접수되는 크고 작은 민원이 저에게는 군민의 목소리이자 무게입니다.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주민께 알리는 과정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장행복 의원은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그 한마디가 제겐 큰 힘입니다.

Q. 지역 현안 중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복지 정책 내실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우리 남해가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관심사인 신청사 건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군정질문을 통해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교육 환경 개선, 주민 안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도 균형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Q. 평소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요.

오랜 보육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와 돌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약 10년 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절실한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부하고, 더 봉사하면서 군민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Q.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저는 언제나 군민 곁에서 듣고, 배우고, 함께 걷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어떤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처음처럼 한결같은 군의원 장행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남해군이란 [나의 자랑] 이다.

남해는 내 어린 날의 꿈이 자란 곳이자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운 뿌리다. 내 고향 남해를 남해군의회 의원의 시선에서 더 깊게 바라봤다.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 계절 따라 물드는 들녘의 풍경...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남해의 얼굴이다. 남해는 자연의 품 안에서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힘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의 자부심이다. 그렇게, 남해군은 나의 자랑이자 행복이다.

장영자 의원의 남해 이야기



“ 일상 인프라가 튼튼한 남해 ”

Q. 간단한 자기소개와 남해군과의 인연을 들려주세요.

남해는 제 삶의 뿌리이자 되돌아올 안식처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남해에서 나왔고 타지에서 예술가로 활동했지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돌아온 뒤 비로소 이곳이 제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 국악 강사로 교육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했습니다. 창극과 민속놀이 취타대로 남해의 역사를 무대에 올리며, 한 분 한 분이 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Q.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활동은 무엇인가요?

회기 중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바우처 택시 도입(2022.10.)과 고성능 차선 도색(2024.3.) 등을 제안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했고, 공중화장실 비상벨(2024.8)과 농로 진입로 LED 조명(2025.2.) 설치로 주민 안전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고령 어르신들이 버

스 정류장에서 마을까지 먼 길을 걸어야 한다는 민원을 접하고, 직접 현장을 살핀 뒤 버스와 회사와 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버스정류장을 마을 입구에 추가 설치하여 “이제 편하게 내릴 수 있어 좋아요”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 군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작은 변화가 큰 가치를 만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Q. 지금 특히 관심을 두고 계신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요?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많은 남해군은 교통 한 편, 진료소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 집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두는 지역 현안은 ‘30분 생활권’ 실현입니다. 작은 마을이라도 30분 안에 병원·마트·도서관·어린이집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을버스 효율화, 의료·주거·보육 인프라 효율 배치에 집중함으로써 작은 마을에서도 고령층·장애인·귀촌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일상 인프라가 튼튼해야 모두가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남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 평소 관심 분야와 취미가 있다면요?

사회복지사이자 평생교육사로서 남해군 복지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가 필요하며, 교육은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국가중요유산 이수자이자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훌륭한 자연과 이야기를 가진 남해를 콘텐츠화하여 전통예술·민담·전설을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한 해양문화 콘텐츠, AI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등 ‘남해다움’을 살린 문화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Q. 군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군민 삶을 바꿉니다. 크고 거창한 정책보다 군민이 오늘 겪는 불편 하나를 덜어주는 일, 그것이 군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주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먼저 살피며,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남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진심이 언제나 군민들께 닿길 바라며, 군민 곁에서 언제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남해군이란 [할무네 (어머니의 어머니)] 이다.

언제나 나를 보며 웃어주시던 어머니. 남해는 늘 나를 믿고, 받아주시던 어머니의 어머니들로 가득하다. 50만 내외 남해군민 모두가 그 어머니의 어머니 마음으로 남해를 아끼고 모두 함께 웃으며 살아왔듯이 남해는 나처럼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대를 이은 어머니의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PART 02

남해군의회 이렇게 일했습니다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제9대 후반기 남해군의회. 10명의 의원 모두는 지역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슬로건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PART2에서는 남해군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왔는지를 살펴본다.



2025. 1. 7.
2025년 첫 공식활동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2025. 3. 14.
남해군 연실연구회
본격 활동



2025. 6. 20.
2025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마무리

2024. 7. 1.
남해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2025. 3. 5.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 추진



2025. 6. 12.
발로 뛰는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 남해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2024. 7. 1.

제9대 후반기 남해군의회는 지난해 7월 11일 제27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의회는 같은 해 6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단은 정영란 의장, 박종길 부의장, 강대철 의회운영위원장,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남해군의회 최초 여성 의장으로 당선된 정영란 의장은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당선 소감을 전한바 있다.

제9대 후반기 남해군의회는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14건의 조례 제·개정과 5건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비롯한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현안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현장을 직접 찾는 등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강구 해왔다.

정영란 의장은 “앞으로도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2025년 첫 공식활동,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2025. 1. 7.

남해군의회는 의회 전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정례 의원간담회를 실시한다.

올해 첫 정례 의원간담회는 1월 7일 열렸다. 이날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공모사업 선정 총괄 및 2025년 1월 공모사업 현황 보고’ 등 4건의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주요 현안과 관련, 13일 추가로 집행부 사업설명 보고회를 진행했다. 재논의된 안건은 군관리계획(차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남면 평산리 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2건이다.

정영란 의장은 “군 관리계획 등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 추진

2025. 3. 5.

남해군의회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의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국내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 챗GPT를 활용한 의정활동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I 관련 교육시설인 부산 SW·AI 교육거점센터를 방문해 현장학습도 병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 교육은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감사 절차와 실효성 있는 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챗GPT 교육은 AI 기반 정책 분석, 5분 자유발언 작성 등 의정활동에 적용해 보는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의정 자료 분석, 정책연구, 주민 민원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높였다.



| 남해군 연실연구회 본격 활동

2025. 3. 14.

남해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해군 연실연구회가 올해 주제로 ‘남해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를 선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남해군의 큰 자산인 해양관광을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의회는 3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활동계획서를 승인했으며, 4월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장 행복 대표의원을 포함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 연구과제 구체화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7월 중 토론회를 개최해 남해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8월 인접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거쳐 10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한편 남해군 연실연구회는 2023년 2월 출범 이후 △남해군 생활 밀착형 드론 도입과 항공연구(2023년) △남해군 조례의 정비 및 발굴에 관한 연구(2024년) 등 실적을 거뒀다.



| 발로 뛰는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2025. 6. 12.

남해군의회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인 6월 12일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실사는 관내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사업장은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공사 △솔비치 남해 리조트 조성사업(관광 홍보관 포함)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등 4 곳이다. 의원들은 공사 중인 사업장에서는 공정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미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기했다.

정영란 의장은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의회는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 2025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마무리

2025. 6. 2. ~ 20.

남해군의회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오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4일 각 상임위에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9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당초 목적으로 진행됐는지 중간 점검을 했다.

이번 회기에서 상정된 20건의 안건 중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가결 했고,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원안가결 했다.

군민과 함께, 의회 속으로 1

5분 자유 발언

우리 동네 군의원,
어떤 제안을 했을까?

제9대 남해군의회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본다.



2024. 1. 29.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세수 증대 방안 제안

하 복 만 윤리특별위원장

남해군은 2022년 남해군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기본 시스템과 지하시설·국공유지 등 8개 특화 단위 시스템, 대군민 서비스인 생활지리정보포털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 8.6%로, 자체 자원 확대와 숨은 세원 발굴이 시급합니다.

이에 플랫폼을 활용한 세수 증대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현황 불일치 과세 자료를 플랫폼으로 일괄 추출, 현장 조사해 과세 정확성과 형평성 제고 △공유재산 축소 신고·불법 점용 누락 재산, 측량 곤란지의 점사용료 부과를 플랫폼으로 용이하게 처리 △전봇대·지중·통신설비 등 도로 점사용료 부과 시 누락 면적 없이 정확히 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서별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공유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열린 행정실현으로 군민의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의 사용 편의성을 확대하고 모든 행정 업무에 공간정보를 접목해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 7. 11.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강력 촉구

정 현 옥 의원

남해군은 2020년 11월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재원 조성을 위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25년말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 2023년에야 5억 원이 출연되었고, 이후 기금 조성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해군의의회는 2023년 3월 간담회를 통해 조성 촉구를 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2023년 30억, 2024년 30억, 2025년 4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4년 본예산에는 20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최근 20년 사이 15~40%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쌀값은 30% 이상 하락해 농가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조속히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100억 원 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16.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농산물의 포장박스 지원사업 확대 추진 제안

여 동 찬 기획·행정위원장

남해군은 과거 전국 마늘 생산의 5% 이상을 차지하던 마늘 주산지로서, 지리적표시제 제28호에 등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고령화로 마늘 재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시금치, 단호박 등을 중점 육성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은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규격화된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산물의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늘과 미니단호박은 군비와 자부담 50%로 포장박스를 지원받고 있지만, 시금치는 농협 출하 및 작목회원 중심으로만 종이박스가 지원되고 있어 일반 농가들의 불만이 큼니다. 박스 지원은 단순한 자재 지원을 넘어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일반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농업인 감소,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이 큰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군민 안전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 근본 대책 마련

박 종 식 산업·건설위원장

지반 함몰과 포트홀로 인한 도로 침하 문제는 운전 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및 차량 파손의 원인 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1 건, 2023년 63건, 2024년 114건으로 우리 군도 도로 파임보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 주민 신고나 순찰에 의존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반침하관리시스템과 AI 기반 포트홀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이상기후와 도로 조건을 고려한 고품질 포장재와 맞춤형 보수 공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배수로와 빗물받이 등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로 경사 등을 반영해 물 고임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존 땀질식 도로 유지 관리로는 수년간 반복되고 급증하고 있는 도로 침하와 도로 파임을 대응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더 이상 땀질식 보수에 머물지 말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남해군 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

박 종 길 부의장

남해군 주산업인 농·어업이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해각·다도해 전망대 등 수백억 원을 들인 시설들이 기대만큼의 방문객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정책이 아닌 자연·역사 자원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와 AI·문화 융합 프로그램 개발로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둘째, 신중하고 주도적인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남해군 기업·투자유치 조례 전부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타당성·공공성·군민 이익을 우선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해만의 독창적 랜드마크와 프로그램으로 국책사업과 민자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관광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길 당부드립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 방안 제시

임 태 식 의원

남해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인구는 4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주인구 증가만으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정 기간 체류·방문해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생활인구 확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에 적합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재방문을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웰니스·예술·스마트 농업 테마 마을 등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린 테마형 마을을 조성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소멸기금과 국·도비를 확보하고, 이미 제정된 인구감소 대응 조례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강 대 철 의회운영위원장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남해군에도 250.7ha 감축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총 재배면적의 약 11.9%로,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현실은 고령·중소 규모 가족농이 중심으로, 벼 재배 축소는 단순한 수익 감소를 넘어 생존 문제로 직결됩니다. 대체 작물 전환에도 판로 확보와 초기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큼니다.

이에 △대체 작물 재배 지원과 안정적 판로 확보 대책 △소득 안정성을 위한 지방재정 차원의 지원과 생산 기반 시설 확충 △지역 농업 구조를 반영한 유연한 운영 △감축 목표 미달 시 발생할 패널티에 대한 대비책 마련 △농업인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정책에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 등을 제안합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수치적 목표로만 끝나지 않고, 농업인의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남해군 생활 안전 인프라 정비 제안

장영자 의원

군민 삶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활 속 인프라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 공동체의 삶과 문화가 깃든 정자의 정비와 관리 강화, 또 하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용 모래주머니의 실태 점검과 개선입니다.

현재 등록된 147개 정자는 정기 관리 중이나 ‘미등재 정자’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보수나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 안전성과 활용도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가 큰 정자는 우선 보수하거나 등재하여 행정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차양막 보강, 휠체어 진입로 설치 등 접근성도 강화해야 하며, 주민과 협력해 참여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방재용 모래주머니 역시 노후·방치 상태로 실효성이 낮고, 배치 지역 편중과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 읍면 단위 전수조사와 보관소 표준화, 정기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주민 대상 방재 교육과 모의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남해군 대형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 해결 방안 제안

장행복 의원

현재 남해군은 ‘건설의 시대’라 할 만큼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군청사 신축 등 공공부문 8,744억 원, 솔비치 리조트, 신라호텔 등 민간부문 8,246억 원 등 총 1조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어업권 보상, 마을 기금 납부 등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 무산과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조속한 해결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행정은 갈등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정형화된 갈등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율적 해결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2021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군민의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남해군의회 5분 자유발언 목록]

5분 자유발언 제목	발의 의원	일자(회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강력 촉구	정현옥	2024. 7. 11. 제278회 임시회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 확대 추진 건의	여동찬	2024. 7. 16. 제278회 임시회
도로 환경 개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제안	박종식	2024. 8. 29. 제279회 임시회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촉구	장영자	2024. 8. 29. 제279회 임시회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서양식 좌변기 교체 사업 제안	장행복	2024. 10. 11. 제280회 임시회
북변리 LS마트~남변리 신진건재 앞까지 일방통행 개선 방안 제안	장행복	2024. 11. 20. 제281회 정례회
남해군 관광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박종길	2024. 12. 19. 제281회 정례회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장행복	2025. 2. 18. 제282회 임시회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 방안 제안	임태식	2025. 2. 25. 제282회 임시회
농로 진입로·출구 바닥에 LED 조명 우선 설치	장영자	2025. 2. 25. 제282회 임시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 지원 대책 마련	강대철	2025. 3. 13. 제283회 임시회
재난 대응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 활용 방안	강대철	2025. 4. 15. 제284회 임시회
남해군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장행복	2025. 4. 25. 제284회 임시회
남해군 생활 안전 인프라 정비 제안	장영자	2025. 6. 2. 제285회 정례회
남해군 대형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 해결 방안 제안	장행복	2025. 6. 2. 제285회 정례회

군민과 함께, 의회 속으로 2

건의안 · 조례안



남해군의회. 어떤 입법 활동을 펼쳤을까?

어제보다 나은 군민 삶을 위해 우리 동네 군의원이 제안한
건의안 · 조례안을 알아본다.

군민 목소리를 담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정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온 남해군의회. 제9대 후반기 임기 중 5건의 결의 · 건의안을 발표했고,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을 포함 총 74건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특히 농업, 문화,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정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의정 감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결의안 · 건의안]

주요 결의 · 건의안으로 2024년 7월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임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발전소 주변 지원 범위를 기존 반경 5 km에서 15 km로 확대하고,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대통령실 · 국회 · 정부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9일 제281회 정례회에서는 박종식 의원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축소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시했고, 2025년 4월 15일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장행복 의원이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회기인 4월 25일 하복만 의원의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의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과 박종길 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방의회 기능 및 공공복지 체계 강화에 대한 군의회 의지를 보여줬다.

[제9대 후반기 남해군의회 결의안 · 건의안 목록]

건의문 · 결의문	대표 발의	일자(회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확대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임태식 의원 외 9인	2024.7.16. 제278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박종식 의원 외 9인	2024.12.19. 제281회 정례회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의 건	장행복 의원 외 9인	2025.4.15. 제284 임시회
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	하복만 의원 외 9인	2025.4.25. 제284 임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의 건	박종길 의원 외 9인	2025.4.25. 제284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제9대 후반기 남해군의회 조례 제정·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9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하복만 의원 등이 발의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전통문화 보존·향교 지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다자녀가구 지원·행정사무감사 강화 조례안 등 6건을 처리했다. 10월 18일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아동의 행복한 놀이 기회 보장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11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과 의원 윤리강령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 들어서는 2월 25일 위원회 조례 개정, 3월 18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근거 조례, 4월 25일 회의 규칙 일부 개정, 6월 20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조례안은 크게 다섯 축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군민 생활 안정과 복지 지원이다. 다자녀가구 지원, 민생안정지원금 등 복합적인 주민 생활 관련 입법이 이뤄졌다. 둘째는 농업 지원과 환경개선이다.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기후 대응 작물 지원, 영농부산물 처리 관련 조례는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전을 위한 행보라 하겠다. 셋째, 문화 전승과 관광 활성화다. 전통문화 및 향교 지원,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지역 정체성 강화와 관광자원 다양화를 목적으로 한다. 넷째, 지방자치 역량 강화다. 지방의회 권한 확보 촉구, 윤리강령 정비, 위원회 운영 개선, 회의 규칙 개정은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마지막은 지역 안전을 챙기는 것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발전소 주변 주민 보호,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건의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제285회 제1차 정례회_산업·건설위원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_기획·행정위원회

[제9대 후반기 남해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목록]

조례명	발의 의원	일자(회기)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복만 의원 외 2인	2024. 9. 9. 제279회 임시회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자 의원 외 2인	2024. 9. 9. 제279회 임시회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행복 의원 외 2인	2024. 9. 9. 제279회 임시회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장영자 의원 외 2인	2024. 9. 9. 제279회 임시회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태식 의원 외 2인	2024. 9. 9. 제279회 임시회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 외 2인	2024. 9. 9. 제279회 임시회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장행복 의원 외 2인	2024. 10. 18. 제280회 임시회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강대철 의원 외 2인	2024. 10. 18. 제280회 임시회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태식 의원 외 2인	2024. 11. 28. 제281회 정례회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옥 의원 외 2인	2024. 11. 28. 제281회 정례회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태식 의원 외 2인	2025. 2. 25. 제282회 임시회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박종식 의원 외 2인	2025. 3. 18. 제283회 임시회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하복만 의원 외 2인	2025. 6. 20. 제285회 정례회

PART
03

남해군의회를 알려드립니다



남해군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으로 이뤄진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또한 의회사무과를 두어 의정활동을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PART3에서는 남해군의회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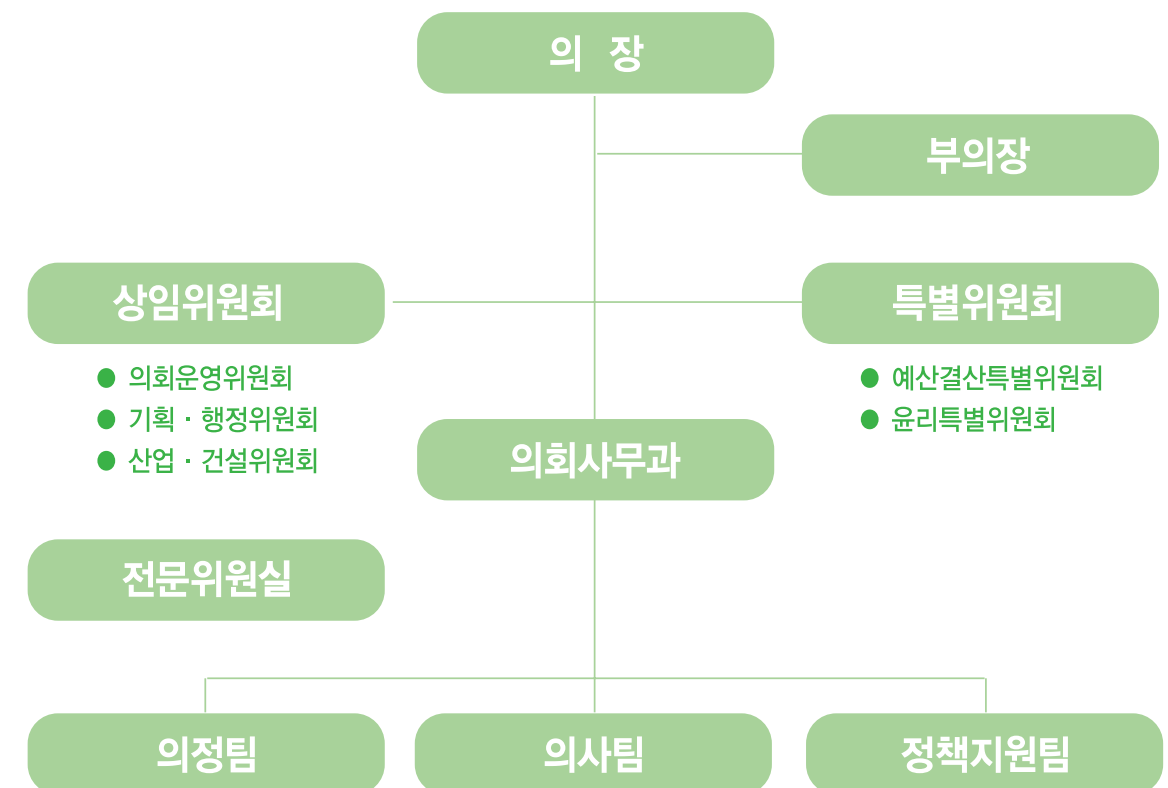
제9대 후반기 남해군의회 슬로건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



수행방향

군민을 섬기는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
현장중심의 일하는 의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상설기구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 남해군의회의는 전문 분야별 3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 윤리 심사·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 중이다. 특정 안전이나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관련된 안전은 본회의의 의결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한시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	간사	위원	직무 및 소관부서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철	하복만	임태식, 박종길, 여동찬, 정현옥, 장행복, 박종식, 장영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한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정현옥	박종길, 강대철, 장영자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단, 행정복지국(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장행복	하복만, 임태식	관광경제국(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해양환경국(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윤리특별위원회	하복만	장행복	박종길, 강대철, 박종식, 장영자	지방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의회 운영

회기 운영	의회 회기는 매년 2회의 정례회와 필요할 때에 여는 임시회로 구분·운영한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 각각 개최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군수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개최하며,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다.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된다. 의원은 미리 의장 허가를 받아 질의,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다.	
정례 의원간담회 운영	남해군의회의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의원간담회를 연다. 의원간담회는 군청으로부터 주요 군책 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는 자리다. 또한 의정 운영 방안에 대해 의원 상호 간 의견 교환과 협의를 거치는 등 주요한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회기 일정

월별	회별	회기(예정)	주요처리 안건
7월	제286회 임시회	7.15.(화) ~ 24.(목) 10일간	- 조례안 등 안건처리
9월	제287회 임시회	9.9.(화) ~ 22.(월) 14일간	- 조례안 등 안건처리
10월	제288회 임시회	10.21.(화) ~ 30.(목) 10일간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처리
11월	제289회 정례회	11.20.(목) ~ 12.19.(금) 30일간	- 2026년 예산안 - 2026년 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방청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의회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 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팀 055-860-3392~5



진정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을 일정한 양식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절차와 처리 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나 의회는 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고 있다.

-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팀 055-860-3392~5

누리집

남해군의회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공개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팀 055-860-3392~5



<http://council.namhae.go.kr>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투명한 의회를 만듭니다.



자치입법권 | 조례제정 · 개정 · 폐지

남해군의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자치재정권 | 예산안 심의 · 확정 및 결산 승인

예산은 지방정부 한 해 살림규모로, 남해군의회는 군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예산을 집행 후 집행부는 결산을 통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통제권 | 행정사무감사 · 조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감사·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서류 제출과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 군정 전반 감사
- 행정사무조사: 본회의 의결로 특정 사안 조사



청원처리권 | 군민 청원 접수 · 심사 · 통보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 의원을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리하지 않는다.

남해군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권한을 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부록

보물섬 남해



경상남도 남서부에 위치한 군. 행정구역은 모두 섬으로만 이뤄져 있으며, 가장 주요한 섬은 남해도와 창선도 2개 섬이다. 각각 하동군, 사천시를 잇는 대교를 통해 육지와 이어져 있다.

남해군 기본현황

| 인 구 39,481명 (2025년 5월 기준)

| 면 적 357.62km²

| 도 선 유인도 3개, 무인도 76개

| 해 안 선 360.62km

| 행정구역 1읍 9면 79리 221마을

| 교육시설 29개교(초등 13, 중·고교 15, 도립대학 1)



심벌마크



통합브랜드



캐릭터 | 해랑이



군화 | 치자꽃



군목 | 비자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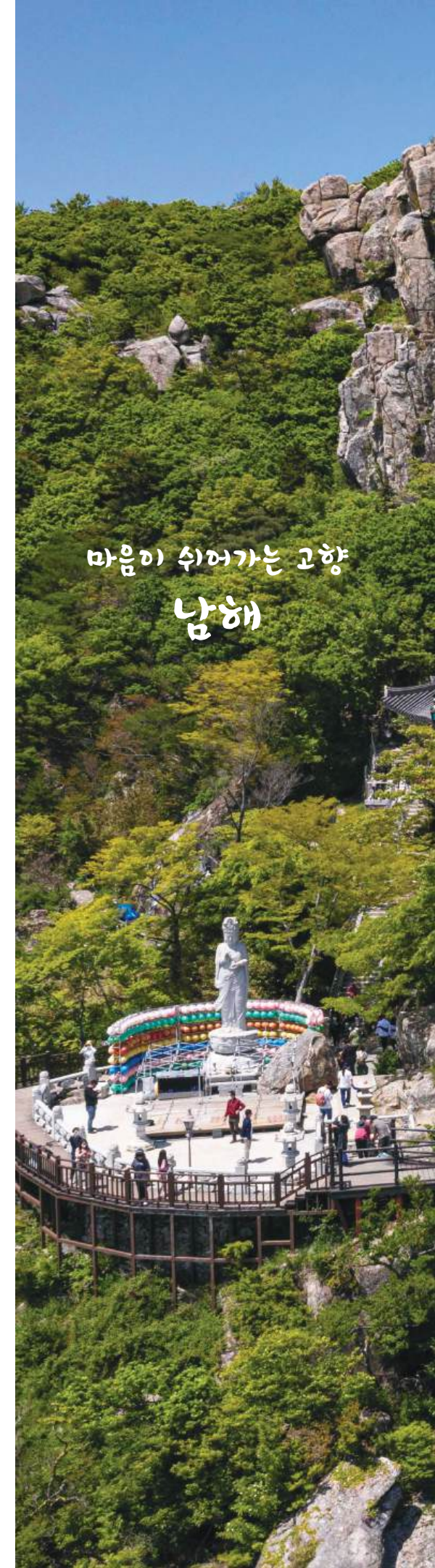


군조 | 백로



군어 | 감성돔

마음이 쉬어가는 고향
남해



남해
관광안내지도



남해바래길

- 범례**
- 1 ~ 16 본선 시작점
 - 1 ~ 4 지선 시작점
 - 1 ~ 3 섬지선 시작점
 - 본선 코스
 - - - 지선 코스
 - 섬지선 코스
 - 지명 ● 관광지 ▲ 산
 - ★ 아주 쉬워요
 - ★★ 쉬워요
 - ★★★ 무난해요
 - ★★★★ 조금 힘들어요
 - ★★★★★ 많이 힘들어요
- ※ 남해바래길 전용 앱으로 각 코스를 확보하시고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를 방문하시면 예쁜 캐릭터 배지를 증정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기준
 ※ 바래길 노선 및 여행 정보는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수시로 조정 및 변경됩니다.
 최신 정보는 남해바래길 앱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



남해군의의회
NAMHAE GUN COUNCIL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T. 055)860-3382~3385, 3392~3395, 3602~3604
F. 055)860-3738
<http://council.namhae.go.kr>

본 소식지는 공직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용 외 일반 주민에게
직접 배부할 수 없습니다. 열람 후 꼭 제자리에 놓아주세요.